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⑲ 순천 송광사 경패(經牌)



▶ 한줄 요약
경패는 어떤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지 한눈에 수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패찰.

경전 수록 정보 한눈에 파악하는 패찰

경패는 경전 보관함에 단 꼬리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신 가르침은 방대하다. 경장과 율장, 논장의 세 광주리에 담아서 오늘에 전한다. 경, 율, 논 세 광주리에 담은 부처님 가르침과 그 해설의 일체가 대장경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은 팔만에 이른다. 대장경 원판이 온전히 남아 있는 세계 유일 경판이다. 경판 수가 8만1천258매에 이른다. 옛사람들은 인쇄물로 펴낸 방대한 대장경을 어떻게 분류해서 보관하였을까? 세계 최초의 목판대장경은 10세기 말 북송에서 제작한 '칙판대장경'이다. '칙판대장경'은 황제의 명으로 새긴 대장경이라는 의미다. 30년 뒤 11세기에 그를 토대로 세계 두 번째로 고려에서 초조대장경을 새겼다. 비슷한 시기 거란에선 거란대장경을 간행했다. 북송의 칙판대장경에는 5048권의 불경을 담았고, 고려의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은 6천여 권을 수록했다. 방대한 대장경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분류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됐다.

중국 남북조시대 주흥사가 쓴 〈천자문(千字文)〉 순서를 활용했다. 천자문은 '천지현황'으로 시작하여 '언재호야'로 끝난다. 대장경을 담을 하나의 상자, 또는 한 질(帙,또는 秩)의 크기로 나눴다. 그 단위를 '함(函)'이라 명명했다. '함'은 나무로 짠 궤를 의미한다. 1번 함을 '천(天)', 2번 함은 '지(地)', 3번 함은 '현(玄)', … , 639번 함은 '동(洞)'의 이름표를 달았다. 이런 경전 분류체계를 '함차(函次)'라 부른다. 각 함에서는 권(卷) 차례와 장(張)으로 다시 세분한다. '함, 권, 장'의 체계를 유지했다. 하나의 '함'은 불경 10권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 북송칙판대장경은 5048권의 불서를 갖췄는데 480개 함에 분류하여 수록했다. 6천여 권의 고려초조대장경은 570개 함에, 6265권의 팔만대장경은 639개의 함에 실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한 개의 함에 대략 불서 10권 분량을 편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0여 권에 이르는 〈대반야경〉의 경우에는 60여 개의 함에 나눠 분류했을 터이다. 목판으로 찍어낸 방대한 규모의 대장경은 경함에 담아 이운하거나 보관했다. 보관함에는 내부에 어떤 경전을 보관하고 있는지 한눈에 수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패찰을 달았다. 그 패찰이 '경패(經牌)'다. 경패는 경전 보관함에 달아 둔 꼬리표다. 라벨 같은 기능성에 따라 영문으로 'Sutra Label'이라 표기한다. 경패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화유산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실증사례가 보고되거나 연구된 바 없다. 그런데 한국에선 몇 곳에서 경패가 현전하여 그 수가 50여 점에 이른다. 순천 송광사, 고양 원각사성보박물관(목제 3점), 호암미술관(금동 2점),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은 경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송광사성보박물관은 경패 장엄예술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특별한 성소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각양각색의 경이로운 경패가 송광사에 있다.



순천 송광사 상아제 경패. 상아로 제작한 경패 10점 중의 7점.



순천 송광사 목조 경패. 나무로 제작한 33점 중의 14점.



고려 나전경함. 13세기, 영국박물관 소장.



순천 송광사 경패 43점 일괄(상아제 10점, 목제 33점).

희귀한 성보, 송광사 경패 43점

송광사에 현존하는 경패는 모두 43점이다. 코끼리 어금니인 상아로 만든 것이 10점, 나무로 조각한 것이 33점이다. 상아로 만든 경패는 밝고 따스한 아이보리색을 띤다. 목제 경패는 기본 바탕이 검은색이다. 나무 재질은 흑단목으로 알려진다. 10여 점의 목제 경패에는 특별히 검은 먹 위에 붉은색의 주칠을 덧입혔다. 경전명과 연꽃의 화심부, 불보살의 법신엔 금빛을 베풀어 성스러움의 현현을 강조했다. 경패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세로 12.8~16.7cm, 가로 2.9~4.6cm이고, 평균 두께는 상아제 경패 0.9cm, 목제 경패는 0.6cm 정도다. 평균 무게는 상아제 44.1g이고, 목제는 31.7g으로 측정됐다.

〈송광사지〉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4년(1278년) 11월에 제6세 국사인 원감국사 충지 스님이 강화도에 있던 당대의 국찰 선원사에서 거란대장경 1천 책을 송광사로 옮겨 왔다고 한다. 송광사 경패 일괄은 거란대장경 이안 당시 대장경을 담은 상자함, 또는 두루마리 묶음 질(帙)에 부착한 경전명 꼬리표로 추정한다. 기록의 뒷받침대로라면 송광사 경패는 750년 된 고려시대 목제공예로서 희귀성과 유일성까지 더해져 보물의 지위를 능가한다.

경패는 3단 구조다. 연화좌와 패신인 몸체부, 머리 부분으로 구성했다. 위패나 비문을 새긴 비석 형식과 닮았다. 연화좌 위에 경전명을 새긴 패신을 올렸다. 사경첩 표지 그림에서 연꽃 위에 경전명의 패를 봉안한 원리와 상통한다. 장엄은 양면에 새겼다. 몸체부의 앞면은 '대방광불화엄경 제1함(大方廣佛華嚴經 第一函)'과 같이 경전명과 권수를 음각으로 새겼다. 몸체부 뒷면은 불보살과 금강역사, 그리고 칼, 활 등의 무기로 무장한 호법신중을 깊은 부조로 조각해서 봉안했다. 그 아래에 작은 사각형 칸을 따로 조성하여 대장전으로 여겨지는 건물을 양각한 후 '사(舍)' '방(傍)', '동(同)', '기(氣)', '전(殿)' 등 천자문 순서에 따른 함차를 새겼다. 직사각형 몸체부의 가장자리는 연속하는 넝쿨문이나 금강저문, 기하문 등을 둘렀다. 머리부는 비석의 이수와 흡사하게 조영했다. 상아 경패의 머리부는 봉긋봉긋한 반원형 여의두문 내부에 용, 봉황을 투조기법으로 조각했다. 목제 경패에선 활짝 핀 연꽃이나 연잎을 양각으로 조각했다. 머리부 연꽃의 화심부에는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뒀다. 목제 경패에선 두 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상아 경패는 머리 부분의 투조를 이용해서 포장 함이나 질에 경패를 묶어 달 수 있게 했다. 경패에 새긴 장엄과 문양은 대단히 치밀하게 새겨 디테일이 살아있다. 명작의 가치는 디테일의 장인정신에서 우러나오는 가치다. 경패에 고스란히 새겨진 문양의 세밀함은 조형에 생명력과 성스러움을 부여한다.

상아제 10, 목제 33, 총 43점 경패
경패에 경전명, 보살, 호법신중 새김
세계적으로 드문 경패 50여 점 현존
송광사엔 희귀한 경패와 경질 현존

〈대방광불화엄경〉 경패 27점

경패는 단순한 표찰이 아니다. 법구다. 단순한 분류 표찰의 목적성이라면 종이에 경전명과 권수를 써서 상자나 포장 겉감에 붙여두면 간단하고 손쉽다. 귀하고 값비싼 상아나 흑단목을 재료로 삼아 옻칠과 주칠, 금니 안료를 입히고, 섬세하고 정밀한 고부조나 투조로 조각한 것은 경패를 성보의 위상으로 성스러움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불보살과 호법신중을 새긴 경패는 법을 수호하는 위신력을 가진 성보다. 조각으로 표현한 대단히 특별한 변상도 개념으로도 적극 해석할 수 있다. 자그마한 경패 목조각 하나에 법신앙과 위신력, 경전 정보, 장인예술이 두루 구현돼 있다.

경패 앞면에 새긴 경전명에는 어떤 불서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크게 세 종류다. '경(經)', '논(論)', '전(傳)' 등이다.

첫째, 경전류다. 경패에 새긴 경전류는 5종이다. 〈대방광불화엄경〉, 〈묘법연화경〉, 〈대보적경〉, 〈별역잡아함경〉, 〈출요경〉 등이다. 그 중에서 〈대방광불화엄경〉을 새긴 경패가 압도적으로 많다. 43점의 경패 중 27점이 화엄경 패찰이다. 상아제 10점, 목제 17점이 모두 화엄경 경패다. 특히 상아제 경패 10점 모두 화엄경 경패다. 앞면에 〈대방광불화엄경 제一함(大方廣佛華嚴經 第一函)〉을 새기고, 뒷면 호법신장 아래에 '정(貞)', '진(晉)', '주(周)'를 적는 방식으로 조형했다. 같은 함호에 대해 세 가지 경패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왜 서로 다른 함차를 사용하는 것일까? '정(貞)'은 당나라 795년~798년 기간인 '정원연간(貞元年間)'에 발행한 정본 40권 화엄경을 의미한다. '진(晉)'은 5세기 동진에서 한역한 진본 60권 화엄경을, '주(周)'는 당나라 측천무후 통치시기에 한역한 주본 80권 화엄경을 상징한다. 당나라 측천무후가 즉위하면서 국호를 '주(周)'로 삼았기에 그 시기에 한역한 80권 화엄경을 '주본'으로 별칭했다. 또 〈대방광불화엄경〉의 같은 경전명에 1함, 3함, 4함, 5함, 7함, 1질(秩, 또는 帙), 4질, 5질 등의 함호, 질호를 음각했다. '함'은 경전 상자에 부착한 경패일 것이다. '질'은 보자기나 책갑으로 감싼 완전한 한 세트, 혹은 두루마리 경전 묶음의 꼬리표로 추정되지만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송광사에는 두루마리 경전 묶음과 관련한 또 다른 희귀한 고려시대 목제 유물이 존재한다. 보물로 지정된 두 점의 '경질(經帙)'이 그것이다. 경질은 두루마리 경전을 둘둘 말아서 보관할 때 함께 감싼 책갑의 일종이다. 경질은 가늘게 만든 대나무 발을 색실로 엮어 제작했다. 이 역시 경패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성보다. '질' 호의 경패는 그 경질의 바깥에 부착한 것으로 보면 자연스럽다. 질호를 새긴 목조경패는 원각사성보박물관에도 세 점 현전한다. '대방광불화엄경 제2질', '대방광불화엄경 제4질', '대방광불화엄경 제5질'의 세 점인데 조형원리가 송광사 경패와 흡사하다.

둘째, 논서(論書)다. 〈아비달마집이문족론〉, 〈아비달마품류족론〉, 〈대승아비달마잡집논〉, 〈신화엄경론〉 등이 논서에 해당한다.

셋째, '록(錄)', '전(傳)' 등이다. 〈속고승전〉, 〈대원성조지원변위록〉, 〈경률리상〉 등의 불서가 또 하나의 범주를 형성한다. 경패의 목록에는 경전과 논서가 중심을 이룸을 알 수 있다. 경패는 인류의 위대한 성취, 대장경의 실존을 증명한다. 경패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세생생 전하고 유통시키려는 고귀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상아와 흑단목이라는 최상의 소재로 제작한 경패는 우리를 경전의 바다, 해장보각의 세계로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사진작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제6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음 9.17) 오후 2시 ~ 4시
■ 장 소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5D~5E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범석수불 대율사 (전,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갈마아사리 관허수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장)
교수아사리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 및 교수사)
존증아사리 심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존증아사리 원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존증아사리 혜성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남경불교 성지순례

부처님 정진구사리 친견, 현장법사 정진구사리 친견 공양법회

한불여행사에서는 중국 남경의 천년고찰을 참배하며, 일반 여행사를 통해서는 친견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불정사, 불정궁 지하궁전 석가모니 부처님 두정골 사리친견, 대보은사 불교박물관 관람 등을 순례하면서 친견법회를 봉행합니다.
영곡사에서는 현장법사의 정골사리 친견 공양법회를 진행하며 순례 동참자의 소원성취, 성불을 발원하고, 현장법사가 직접 경전을 새긴 대장경 338,000장 관람 체험을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순례동참
• 순례예정 :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금) 4박 5일
• 순례지역 : 중국 남경
• 동참인원 : 60명(선착순)
• 동참서류 : 여권사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계약금 50만원
• 동 참 비 : 1,650,000원(모든 경비 포함)
• 동참계좌 : SC제일은행 128-20-209517 한불여행사(주)
• 신청마감 : 선착순 마감
• 접 수 : 한불여행사(주)
• 문 의 : 한불여행사(주) 02-741-0495~6

순례참배 불정사 불정궁 불정탑 / 영곡사 / 탕산 온천 / 대보은사 / 서화사

주최 한불여행사(주) 후원 해동불교문화대학

한불여행사(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49(낙원동 243-3)